

청소년의 자살생각 관련변인들 간의 인과적 구조분석 :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자아존중감, 집단따돌림,  
그리고 우울을 중심으로

A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the Related Variables of  
Adolescence's Suicidal Ideation

문대근(Moon, Dae-Geun)<sup>1)</sup>  
이진주(Lee, Jin-Ju)<sup>2)</sup>  
이종각(Lee, Jong-Kak)<sup>3)</sup>  
김정민(Koim, Jung-Min)<sup>4)</sup>  
문수백(Moon, Soo-Back)<sup>5)</sup>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variables related to the Suicidal Ideation of Adolescents. A total of 923 Middle school students residing in Daegu City completed questionnaires which assessed family adaptability, family cohesion, self-esteem, bullying victimhood,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The sample variance-covariance matrix was analyzed using AMOS 20.0, and a maximum likelihood minimization function. Goodness of fit was evaluated using the SRMS, RMSEA, and its 90% confidence interval, CFI, and TLI.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First, the variables of family adaptability and family cohesion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sup>1)</sup>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 졸업

<sup>2)</sup> 대구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박사과정

<sup>3)</sup> 대구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박사과정 졸업

<sup>4)</sup> 대구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박사과정 졸업

<sup>5)</sup> 대구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Soo-Back Moon, Department of Child Studies,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330 Hayang-eup, Gyeongsan-si, Gyeongsangbuk-do 712-702, Korea  
E-mail : iqmoon@hanmail.net

© Copyright 2013, The Korean Society of Child Studies. All Rights Reserved.

direct impact on adolescence's suicidal ideation, although they may well have an indirect effect on suicidal ideation through self-esteem, bullying victimhood and depression. Second, Self-esteem and bullying victimhood had significant direct effects on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Moreover, they also had an indirect effect on suicidal ideation through self-esteem. Third, depression had a substantial direct effect on suicidal ideation. Finally, self-esteem did not indicate a direct effect on bullying victimhood.

**Key Words** : 자살생각(Suicidal Ideation), 우울(Depression), 집단따돌림(Bullying Victimhood), 자아존중감(Self-Esteem), 가족적응성(Family Adaptability), 가족응집성(Family Cohesion).

## I. 서 론

Ministry of Education(2011)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주요 OECD 국가 중 자살률에서 대한민국이 28.4로 가장 높은 것(OECD Health Data, 2010)으로 나타났고, 연도별(03년~10년) 학생 자살현황이 2003년도 100명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에 146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2009년 통계청 자료에서 15~24세 청소년의 사망원인 중 고의적 자해(자살, 15.3%)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과학기술부는 '청소년 자살예방 시청각 교재'를 개발·배포하였으며, 또한 사회적으로 청소년들의 자살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2011년 12월 대구 중학교 자살사건과 더불어 2012년 4월 영주 및 안동 중학생 자살사건이 다시 일어나면서 현재 청소년 자살과 관련된 예방대책 및 실증적 연구의 부족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뒤늦게 정부에서는 '2011년 4월 학생자살 예방 및 위기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 할 것이라 계획을 내 놓고 있지만 청소년 자살률을 낮추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자살에 대한 실질적

원인이 무엇인지 탐색해 보아야 하는 시점이라 사료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5명 중 1명꼴인 19.5%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것(YTN NEWS, 2012에서 재인용)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청소년 자살에 있어서의 심각성을 대변하고 있다. 현재까지 자살관련 연구경향을 살펴보면, 자살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자살생각, 자살시도, 자살인 3가지 범주로 특징지어 진다(Linehan, 1986).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2010)는 자살의 3가지 특징 중에서 자살생각이 자살시도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난다고 밝혔으며, Keane, Dick, Bechtold와 Manson(1996)의 연구결과에서 자살생각은 자살의 경향 중에서 가장 우선시됨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자살생각은 현실적으로 자살행동을 예방하는 가장 적절한 지표(Lee, Choi, Kim, Park, & Shin, 2009)가 될 것이라 보여지기 때문에 청소년의 자살경향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적 모색으로 자살생각의 연구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자살생각 관련연구에서는 부적요인(risk factors)의 개별화가 자살 예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설명(Pace & Zappulla, 2010; Horwitz, Hill, King, & Cheryl, 2011)하고 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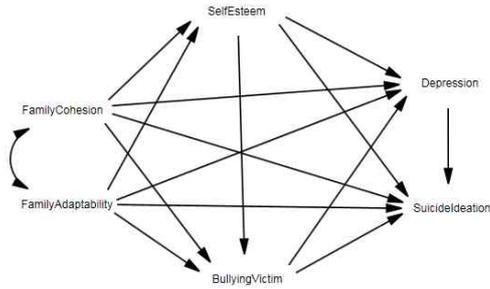
이러한 부적요인 중 우울은 자살생각, 자살행동, 자살에 있어 주요한 부적요인으로 확인되었다 (Groholt, Ekberg, Wichstrom, & Haldorsen, 2000).

게다가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피해자가 자살생각(Choi, 2007)과 우울(Lee, Kweon, & Kim 2007; Han & Yoon, 2010)에 있어서 더 취약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집단따돌림 피해아동은 상황에 따라 적응력이 떨어져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되고, 대인관계를 잘 갖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행동에 충동적인 면이 있어 또래관계에서 소외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며,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Choi, Jin, & Kim, 2001). 또한 소외된 청소년은 타인과의 정서적 거리를 보이고, 자신의 인생을 잘 헤쳐 나가지 못할 것이라 믿으며,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과 이해와 애정을 가지지 않는다고 느끼면서 자살을 선택한다는 연구결과(Choi, Kweon & Kim(2007) 집단따돌림 현상과 자살과의 높은 관련성을 시사해준다.

게다가, 우울과 낮은 자아존중감이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변인임을 제시하였고(De Man, 1999; Kim et al., 2006; Sum, Hui, & Watkins, 2006 : Park et al., 2010에서 재인용), Kim과 Lim의 연구에서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청소년은 우울과 불안 등의 정서장애와 낮은 성취 수준을 보이며, 대인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여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데 서투르고, 이를 회피함으로써 고립됨을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만성적 고통을 겪고 있는 청소년일수록 자살생각과 그 결과에 따른 행동이 증가함(van Tilburg et al., 2011)을 나타냄으로, 자살생각에 있어서 부적요인이 연구모델 설정에 있어서 필수요소임을 시사한다.

이와 함께 Wilkinson(1974)에 의하면, 청소년

기에는 신체적·정서적으로 미숙하여 사회가 성인으로 인정할 때까지는 가정에서의 의존이 강하여 청소년 문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정환경을 꼽았다. 가족은 인간발달의 기초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환경이며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와 상호작용이 가족 구성원 각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Jung & Shin, 2009). 따라서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사회화의 1차적 담당체인 가정의 완전치 못한 기능수행의 결과로 이해될 수 있으며, 가정환경은 청소년의 행동문제 발생에 결정적인 원인(Tolan, Cromwell, & Brasswell, 1986)으로 작용되어 왔다. Olson과 Gorall(2003)에 의하면, 가족의 상호작용은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의 분리와 연결의 차원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하여 가족구성원들이 서로 밀착되기도 하고 서로 독립적이 되기도 함을 보고하였다. 또한 가족끼리의 상호작용이 높은 경우에는 서로간의 배려와 의사소통이 높게 나타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 간의 상호성은 상당히 미약하게 변화됨(Kang, 2010)을 알 수 있었다. 즉, 기능적 가족의 자녀는 발달과정 과정을 원활하게 겪으며 적응도가 높은 반면, 역기능적 가족의 자녀는 심리적 불안정성을 가지게 되고, 이는 다시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antisteban et al., 1999 : Kim & Ahn, 2008에서 재인용). 따라서 높은 수준의 가족응집성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상황적 스트레스에 보다 융통성 있게 대처하도록 하지만(Galvin & Bronmel, 1986), 낮은 응집성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를 떨어뜨려 문제행동을 야기할 수 있다(Lee & Jang, 2011). 또한 가족적응성이 낮은 경직집단의 청소년이 다른 집단에 비해 불안과 우울을 가장 많이 느끼는 반면, 가족적응성이 높은 매우 융통적인 집단의 청소년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자아존중감을 보인다(Jeon, 1993). 게



<Figure 1> Hypothesized research model

다가 Fott(2006)의 연구에서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청소년들이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Kim, Jung, & Lee, 2009에서 재인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살연구에서 가족관계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관련변인들 중에 우울, 집단 따돌림, 자이즌중감,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을 원인변인으로 설정하여,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원인변인을 탐색적 방법을 통해 밝혀냄으로써 청소년이 느끼는 자살생각을 미연에 방지하여 청소년의 자살률감소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또한 청소년기의 자살생각은 성인기에 자살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일련의 원인들을 사전에 통제함으로써 청소년의 자살문제에 조기개입 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연구모델인 구조회귀모델의 부합도 및 모수치를 신뢰롭게 추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모수치 : 피험자의 수의 비율을 1 : 15의 기준(Moon, 2009; Kline, 2011)에 따른 필요한 최소한의 연구대상을 얻기 위해 층화무선표집방법으로 표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학년 297명, 2학년 309명, 3학년 317명의 남학생 472명과 여자학생 451명의 청소년, 총 923명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이와 같은 연령을 선택한 이유는 자살생각의 정도는 청소년기일 때 절정임(Rueter & Kwon, 2005)을 보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 2. 측정 도구

### 1) 자살생각(Suicide Ideation)

본 연구에서는 Reynold의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SIQ)를 Shin(1992)이 변안한 척도를 재구성하여 범주화한 척도 점수를 뜻한다. 이 척도는 단일척도임을 확인(Brausch & Gutierrez, 2009)하여 문항꾸러미화 방법(Item Parceling Method)을 통한 자살생각1 10문항, 자살생각2 10문항과 그리고 자살생각3 10문항을 하위요인으로 하는 총 30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며,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정말 그렇다'(5점)에 이르는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의 점수가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자살생각이란 변인의 특성상 정적편포된 분포로 나타남으로써 변환(transformations)을 통해 원점수의 분포를 수학적 변환인 로그함수(log<sub>10</sub> X) 통한 보다 정규분포 가정을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분포로 변환시켰다.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추정한 결과, 자살생각 1은 .75, 자살생각 2은 .82 자살생각 3은 .73로 나타났다. 또한 Raykov(2004)의 CFA 측정모델을 이용한 척도 신뢰도 추정절차에 따라 정서조절척도의 신뢰도

계수를 추정한 결과, .91로 나타났다.

#### 2) 우울(Depression)

본 연구에서의 우울은 Caryey, Enyart, Fauistich, Ruggiero와 Gresham(1986)이 아동·청소년용으로 개발한 CES-DC(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for Children)와 Kovacs의 CDS(Children's Depression Scale)를 참고하여 Jeon(1993)이 번안한 무력감, 외로움, 무가치감으로 범주화한 척도 점수를 뜻한다. 이 척도는 무력감 11문항, 외로움 7문항과 그리고 무가치감 7문항을 하위요인으로 하는 총 25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며,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정말 그렇다'(5점)에 이르는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점수가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우울이란 변인의 특성상 정적편포된 분포로 나타남으로써 변환(transformations)을 통해 원점수의 분포를 수학적 변환인 로그함수( $\log_{10} X$ ) 통한 보다 정규분포 가정을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분포로 변환시켰다.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  $\alpha$ 계수를 추정한 결과, 무력감은 .92, 외로움은 .94, 무가치감은 .90로 나타났다. 또한 Raykov(2004)의 CFA 측정모형을 이용한 척도 신뢰도 추정절차에 따라 우울척도의 신뢰도 계수를 추정한 결과, .90로 나타났다.

#### 3) 집단따돌림 피해(Bullying Victimhood)

본 연구에서의 집단따돌림은 Choi(1999)의 연구를 기초로 Jeon(2007)이 소외형(5문항), 언어형(5문항)과 그리고 신체형(5문항)으로 범주화한 척도점수를 뜻한다. 이 척도는 총 15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며,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정말 그렇다'(5점)에 이르는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집단따돌림의 피해점수가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집단따돌림이란 변인의 특성상 정적편포된 분포로 나타남으로써 변환(transformations)을 통해 원점수의 분포를 수학적 변환인 로그함수( $\log_{10} X$ ) 통한 보다 정규분포성 가정을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분포로 변환시켰다.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  $\alpha$ 계수를 추정한 결과, 집단따돌림의 하위요인 소외형 .79, 언어형 .73, 신체형 .71로 나타났다. 또한 Raykov(2004)의 CFA 측정모형을 이용한 척도 신뢰도 추정절차에 따라 신뢰도 계수를 추정한 결과, 집단따돌림은 .78로 나타났다.

#### 4) 자아존중감(Self-Esteem)

자아존중감은 Coopersmith(1967)와 McChale과 Caighead(1988)의 이론을 참고하여 Choi와 Jeon(1993)이 개발한 가정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학교적 자아존중감과 그리고 총체적 자아존중감으로 범주화한 척도 점수를 뜻한다. 이 척도는 가정적 자아존중감 9문항, 사회적 자아존중감 9문항, 학교적 자아존중감 8문항, 총체적 자아존중감 6문항을 하위요인으로 하는 총 32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며,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정말 그렇다'(5점)에 이르는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의 점수가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  $\alpha$ 계수를 추정한 결과,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 가정적자아존중감 .92, 사회적자아존중감 .89, 학교적자아존중감 .65, 총체적자아존중감 .73으로 나타났다. 또한 Raykov(2004)의 CFA 측정모형을 이용한 척도신뢰도 추정절차에 따라 신뢰도 계수를 추정한 결과, 자아존중감은 .79로 나타났다.

### 5) 가족응집성 및 가족적응성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족응집성 및 가족적응성 검사는 Olson, Portner과 Lavee(1985)가 가족상호작용기능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 표준화한 Family Adaptability & Cohesion Evaluation Scale(FACES III)를 Jeon(1993)이 번안한 도구 중 Kim(2006)가 초등학생용으로 수정한 것을 재구성한 것이다. 이 척도는 단일적도임을 확인하여 문항꾸러미화 방법(Item Parceling Method)을 통한 가족응집성1, 5문항과 가족응집성2, 5문항, 가족적응성1, 5문항과 가족적응성2, 4문항을 하위요인으로 하는 총 19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며,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정말 그렇다'(5점)에 이르는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의 빈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  $\alpha$ 계수를 추정한 결과, 가족응집성1은 .78, 가족응집성2는 .79, 가족적응성1은 .76, 가족적응성2는 .69로 나타났다. 또한 Raykov(2004)의 CFA 측정모델을 이용한 척도신뢰도 추정절차에 따라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 척도의 신뢰도 계수를 추정한 결과, 가족응집성은 .79, 가족적응성은 .83으로 나타났다.

### 3.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2년 3월 27일부터 동년 4월 10일까지 대구지역에 소재한 중학교 1개교에서 자율학습시간을 이용하여 각 학급의 담임교사가 지시사항을 알려주고 각 담임교사의 감독하에 실시하였다. 1학년 297명, 2학년

309명, 3학년 317명의 남학생 472명과 여자학생 451명의 청소년 총 923명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측정방법을 통해 표집하였다.

### 4. 통계모형 및 자료 분석

본 조사는 청소년의 자살생각 원인변인으로 설정한 우울, 집단따돌림, 자아존중감,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의 직·간접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그림 1의 연구모델을 그림 2와 같은 통계적 모델로 설정하였다. 그림 2의 통계적 모델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연구모델하의 각 이론변수들은 지표변수들을 이용하여 수학적으로 측정되는 잠재변수로 설정하였다. 즉, 자살생각의 경우에는 자살생각1, 자살생각2, 자살생각3을 지표변수로 설정하였고, 우울의 경우에는 무가치감, 외로움, 무력감을 지표변수로 설정하였고, 집단따돌림은 소외형집단따돌림, 언어형집단따돌림, 신체형집단따돌림을 지표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자아존중감의 경우에는 총체적자아존중감, 학교적자아존중감, 사회적자아존중감, 가정적자아존중감을 지표변수로 설정하였고, 가족응집성의 경우에는 가족응집성1, 가족응집성2를 지표변수로 설정하였고, 가족적응성은 가족적응성1, 가족적응성2를 지표변수로 설정하였다.

모델부합도는 부합도 지수  $\chi^2$ 값, RMSEA, SRMR, CFI, NNFI 등을 통해 평가하였다. 이어서 모델하의 변인들 간의 직접효과는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으며, 간접효과 역시 AMOS20.0의 Bootstrapping절차를 사용하여 분석한 다음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 III. 결 과

#### 1. 측정변인간의 상호상관행렬 및 기술 통계치

통계적 모델하의 측정변인들 간의 상호상관행렬 및 각 측정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추정한 결과 아래 Table 1과 같다.

통계적 모델의 추정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AMOS20.0의 다변인정규분포성 검증 절차를 통해 구조방정식모델하의 17개 측정변수들에 대한 다변인정규분포성을 검증한 결과, 단 변인별 왜

도와 첨도 모두에 있어서 정규분포의 조건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다변인정규분포성 가정 역시 충족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최대우도추정(ML :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절차를 적용하여 모델의 부합도와 모수치를 추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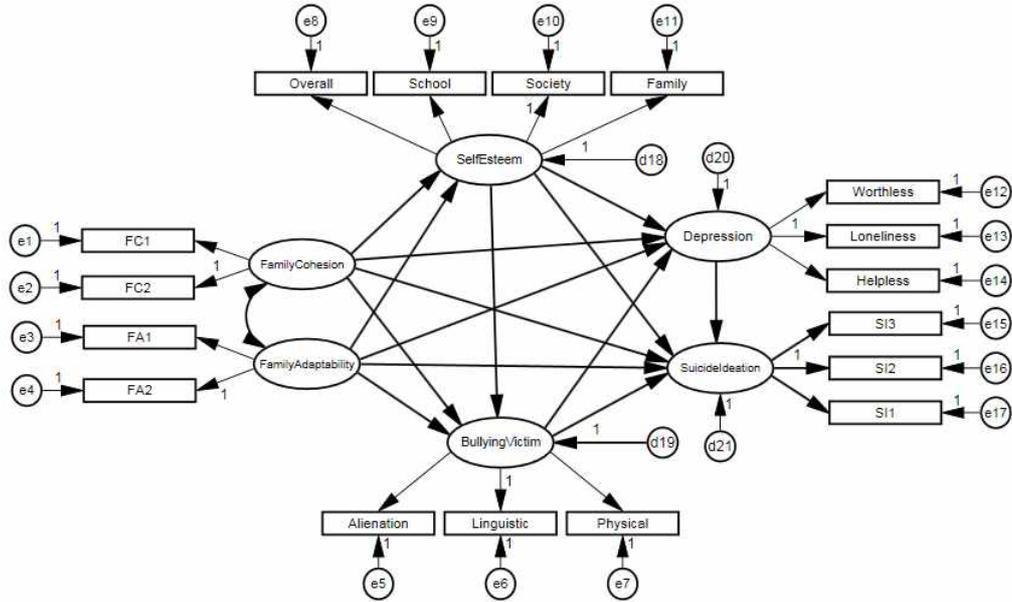
#### 2. 측정모델의 부합도 및 모수치 평가

연구모델인 구조회귀모델의 모델추정가능성과 부합도를 검증하기 전 2단계 모델추정가능

<Table 1> Correlation matrix and Descriptive Statistics for Measured Variable

변 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	1.00																
2	.65	1.00															
3	.55	.54	1.00														
4	.45	.54	.69	1.00													
5	.48	.47	.47	.48	1.00												
6	.41	.46	.43	.31	.54	1.00											
7	.33	.36	.32	.32	.46	.46	1.00										
8	.49	.48	.50	.33	.50	.53	.46	1.00									
9	-.20	-.21	-.22	-.23	-.21	-.15	-.15	-.13	1.00								
10	-.18	-.18	-.21	-.20	-.21	-.12	-.14	-.12	.61	1.00							
11	-.11	-.13	-.17	-.15	-.17	-.10	-.13	-.12	.46	.49	1.00						
12	-.13	-.16	-.17	-.16	-.18	-.11	-.10	-.17	.39	.27	.17	1.00					
13	-.16	-.21	-.18	-.17	-.20	-.15	-.13	-.20	.43	.30	.18	.89	1.00				
14	-.19	-.21	-.21	-.20	-.25	-.17	-.15	-.21	.39	.31	.16	.90	.91	1.00			
15	-.17	-.20	-.19	-.17	-.16	-.13	-.07	-.17	.34	.30	.18	.64	.58	.61	1.00		
16	-.19	-.22	-.22	-.20	-.23	-.18	-.13	-.21	.35	.29	.19	.65	.59	.62	.88	1.00	
17	-.15	-.17	-.17	-.15	-.19	-.16	-.10	-.18	.34	.27	.19	.67	.63	.64	.85	.91	1.00
Mean	18.04	18.50	17.46	16.30	32.92	32.30	19.40	21.60	.80	.81	.74	1.28	1.04	1.08	1.26	1.23	1.19
SD	3.43	3.34	3.18	2.76	6.00	4.78	4.07	3.23	.13	.13	.09	.18	.18	.19	.18	.20	.19
Skewness	-.27	-.30	-.15	.11	-.65	.08	.05	.07	1.27	1.23	2.35	.10	.34	.11	.04	.32	.47
Kurtosis	.40	.54	.27	1.11	.43	.66	-.63	.35	.99	.84	6.23	-1.29	-1.26	-1.28	-1.26	-1.30	-1.23
n	923	923	923	923	923	923	923	923	923	923	923	923	923	923	923	923	923

(1.Family Cohesion1, 2.Family Cohesion2, 3.Family Adaptability1, 4.Family Adaptability2, 5.Family Self-Esteem, 6.Society Self-Esteem, 7.School Self-Esteem, 8.Overall Self-Esteem, 9.Alienation Bullying Victim, 10.Linguistic Bullying Victim, 11.Physical Bullying Victim, 12.helplessness, 13.Loneliness, 14.Worthless, 15.Suicide Ideation1, 16.Suicide Ideation2, 17.Suicide Ideation3)



<Figure 2> Proposed structural equation model

<Table 2> Model fit indices for measurement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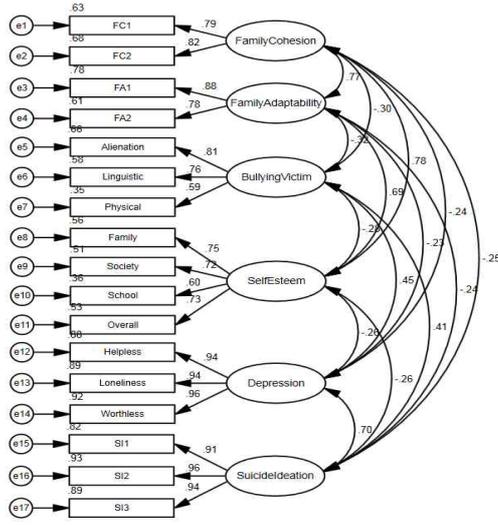
Model	NPAR	DF	CMIN	NC	TLI	SRMR	CFI	RMSEA(.06)	
								LO90	HI90
Measurement	49	104	394.24	3.79	.97	.03	.97	.05	.06

성 확인절차(Moon, 2009; Kline, 2011)에 따라 최대우도추정법에 의한 측정모델의 부합도를 추정하였다. 부합도 추정결과는 아래 Table 2와 같이 나타났다. 또

Table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부합도 지수 평가에서 측정모델의 RMSEA = .05~.06을 비롯한 모든 부합도지수가 부합도 기준에 양호하게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측정모델의 모수치를 추정한 결과 Figure 3과 같다.

Figure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각 잠재변인과 지표변수들 간의 관계를 검토한 결과, 모든 잠재변수에 있어서 지표변수들의 표준화 회귀계수인 요인부하량이 모두 .50이상의 높은

부하량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론변수들 간의 상호상관정도를 검토한 결과, -.23~.77의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구모델하의 각 이론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해 설정된 지표변수들이 충분한 수렴적 타당성을 지니고 있고, 이론변수들 간에도 충분한 변별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측정모델에 있어서 어떤 수정절차도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연구모델하의 모든 이론변수들이 측정모델을 통해 통계적으로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측정된 이론변수들 간의 구조적관계를 설정한 구조회귀모델의 부합도 및 모수치를 추정하였다.



<Figure 3>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Model for 22 Variable

### 3. 구조회귀모델의 부합도 및 모수치 추정결과

통계적 모델을 구성하는 측정모델의 모든 부합도지수가 부합도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구조회귀모델의 모델추정가능성이 이론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최대우도추정방법을 통해 연구모델인 구조회귀모델의 부합도를 추정한 결과 Table 3과 같다.

Table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초기연구모델의 부합도를 추정한 결과 RMSEA = .06 - .07, SRMR = .03, CFI = .97, TLI = .97 등 모든 부합도 지수 평가에서 부합도 기준에 양호하게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모델이 자료에 양호하게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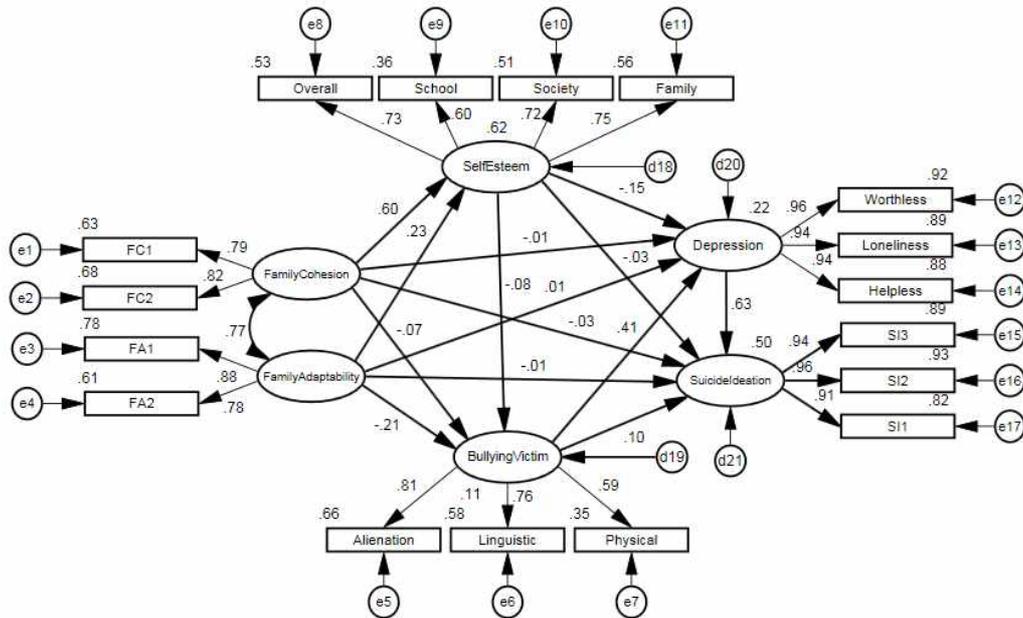
<Table 3> Model fit of research model

Model	NPAR	DF	CMIN	NC	TLI	SRMR	CFI	RMSEA(.06)	
								Lo90	HI90
Original model	49	104	394.24	3.79	.97	.03	.97	.05	.06

<Table 4> Maximum Likelihood Parameter Estimates for SR Model of Suicide ideation

Parameter		Unstandardized	SE	C.R	p	Standardized
Family Cohesion	→ Self Esteem	.967	.112	8.667	.001	.595
Family Adaptability	→ Self Esteem	.372	.101	3.675	.001	.234
Family Adaptability	→ Bullying Victim	-.008	.003	-2.723	.006	-.213
Self Esteem	→ Bullying Victim	-.002	.002	-1.028	.304	-.083
Family Cohesion	→ Bullying Victim	-.003	.004	-.704	.481	-.069
Family Cohesion	→ Depression	.001	.005	-.064	.949	-.005
Family Adaptability	→ Depression	.001	.004	.141	.888	.009
Self Esteem	→ Depression	-.006	.003	-2.132	.033	-.149
Bullying Victim	→ Depression	.712	.066	10.733	.001	.411
Family Cohesion	→ Suicide Ideation	-.002	.005	-.472	.637	-.032
Family Adaptability	→ Suicide Ideation	-.001	.004	-.271	.787	-.015
Bullying Victim	→ Suicide Ideation	.191	.062	3.084	.002	.104
Depression	→ Suicide Ideation	.672	.032	20.915	.001	.631
Self Esteem	→ Suicide Ideation	-.001	.002	-.522	.602	-.029

\*p < .05.



<Figure 4> Estimate of Standardized Parameter for the SR Model

하의 모수치들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Table 4와 Figure 4와 같다.

Table 4과 Figure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초기 연구모델인 구조회귀모델의 경로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자아존중감과 가족응집성 → 집단따돌림으로 가는 경로와,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 → 우울로 가는 경로와,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과 자아존중감 → 자살생각으로 가는 경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기 때문에 모델 수정전략에 따른 모델의 간명성과 이론적 타당성을 고려한 수정모델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 4. 탐색적 모델 개발에서의 수정모델 변화과정

초기연구모델에서 수정된 간명모델은 위계적 모델(hierarchical model)의 관계를 이루고, 경로 계수마다 독립적으로 추정된 것이 아니라 동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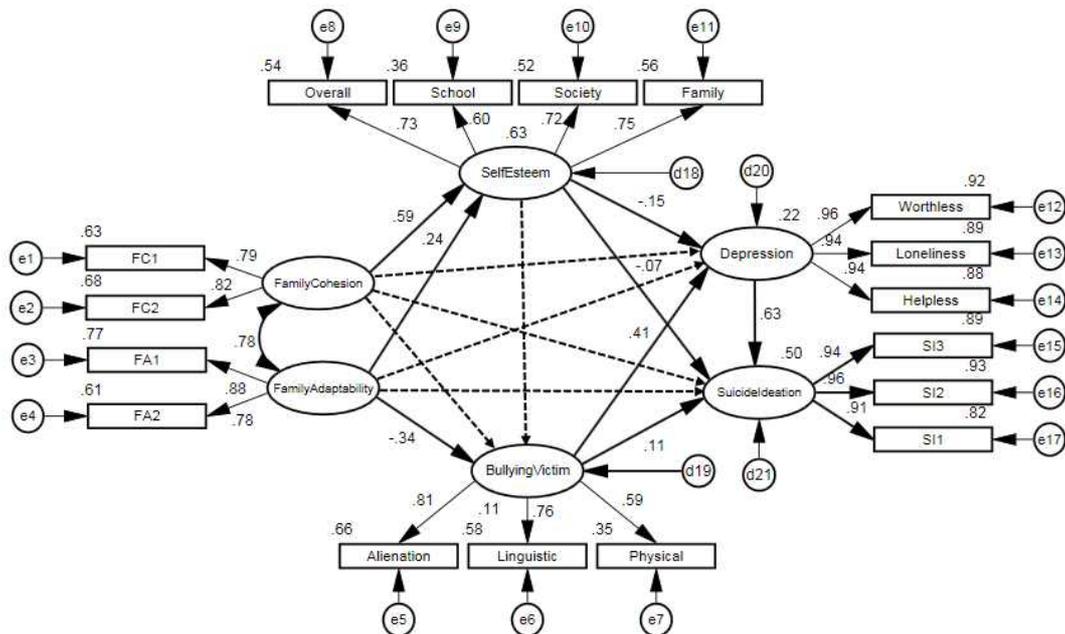
적으로 추정하였기 때문에 초기연구모델에서 수정모델 1 = 가족응집성 → 우울, 수정모델 2 = 가족적응성 → 우울, 수정모델 3 = 가족적응성 → 자살생각, 수정모델 4 = 가족응집성 → 자살생각, 수정모델 5 = 가족응집성 → 집단따돌림, 수정모델 6 = 자아존중감 → 집단따돌림, 수정모델 7 = 자아존중감 → 자살생각으로 가는 경로를 순차적으로 삭제하면서 위계적 모델에 의한  $\chi^2_D$  검증절차에 따라 초기모델과 수정모델 간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Table 5와 같다.

Table 5에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이, 간명화 전략에 따른 모델부합도의 변화 추이를 비교한 결과, 수정모델 1~6까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정모델 7( $\chi^2_D = 5.696, p <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chi^2_D$  값의 감소량이 5.696만큼 나빠졌으며 그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큼 나빠졌

<Table 5>  $\chi^2_D$ 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결과

Model	DF	$\chi^2_D$	p
Modified Model 1	1	.004	.949
Modified Model 2	2	.016	.898
Modified Model 3	3	.072	.789
Modified Model 4	4	.585	.444
Modified Model 5	5	.534	.465
Modified Model 6	6	3.348	.067
Modified Model 7	7	5.696	.017

\*p < .05.



<Figure 5> Modified Research Model

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정모델 7(자아존중감 → 자살생각)에서 나타난 변인들 간의 관계설명에 있어서 모델의 부합도 기준을 위배하였기 때문에 간명화전략에 따른 모델 수정지시는 기각하고, 수정모델 6을 최종분석모델로 선택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수정모델 간명화 전략에 있

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큼 손실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간명성을 6만큼 고려한 간명모델로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모델의 부합도 및 간명성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정모델 6을 최종분석모델(Figure 5)로 선택한 다음 부합도 및 모수치를 추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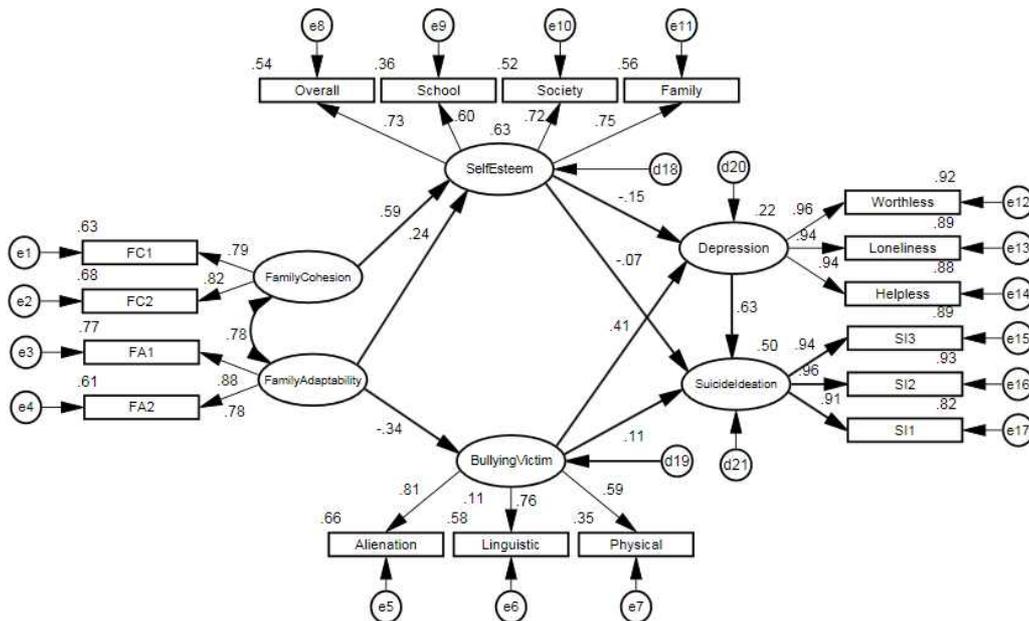
<Table 6> Model fit of modified model and original model

Model	NPAR	DF	CMIN	NC	TLI	SRMR	CFI	RMSEA	
								LO90	HI90
Modified Model	43	110	398.797	3.625	.968	.031	.974	.048	.059
Original Model	49	104	394.237	3.791	.966	.030	.974	.049	.061

<Table 7> Effects Decomposition for a Structural Regression Model of Suicide Ideation

Parameter	Total Effects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Family Adaptability → Self Esteem	.239	.239*	
Family Adaptability → Bullying victim	-.338	-.338*	
Family Adaptability → Depression	-.175		-.175*
Family Adaptability → Suicide Ideation	-.164		-.164*
Family Cohesion → Self Esteem	.590	.590*	
Family Cohesion → Depression	-.089		-.089*
Family Cohesion → Suicide Ideation	-.097		-.097*
Self Esteem → Depression	-.150	-.150*	
Self Esteem → Suicide Ideation	-.164	-.069*	-.095*
Bullying victim → Depression	.411	.411*	
Bullying victim → Suicide Ideation	.368	.109*	.259*
Depression → Suicide Ideation	.630	.630*	

\* $p < .05$ .



<Figure 6> The Final Structural Regression Model

### 5. 수정된 연구모델의 부합도 및 모수치 추정결과

수정된 연구모델의 부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최대우도법을 통한 부합도 지수를 추정한 결과 Table 6과 같다.

위의 Table 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전반적인 모델의 부합도 지수가 부합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최종분석모델의 모수치를 추정한 결과, Table 7과 Figure 6과 같다.

Table 7과 Figure 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가족응집성 → 자아존중감, 가족적응성 → 자아존중감, 가족적응성 → 집단따돌림, 자아존중감 → 우울, 자아존중감 → 자살생각, 집단따돌림 → 우울, 집단따돌림 →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응집성 → 자아존중감 → 우울 → 자살생각, 가족적응성 → 자아존중감 → 우울 → 자살생각, 자아존중감 → 우울 → 자살생각, 집단따돌림 → 우울 → 자살생각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변인 중에서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Total Effects = .630)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집단따돌림 > 가족적응성, 자아존중감 > 가족응집성 순으로 나타났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의 자살생각을 설명해야 할 결과변수로 놓고 선택한 결과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변인으로 가족적응성, 가족응집성, 자아존중감, 집단따돌림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아동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변인들의

구조적 직·간접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통한 측정모델과 구조모델의 모델부합여부와 회귀계수의 모수치 효과를 검증하였다. 따라서 연구모델인 구조회귀모델의 부합도를 추정하기 전에 모델추정가능성 확인 절차(Moon, 2009; Kline, 2011)에 따라 최대우도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 ML)을 통해 측정모델의 부합도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부합도 지수 평가에서 측정모델의 RMSEA (.05~.06)를 비롯한 모든 부합도 지수가 부합도 기준에 양호하게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다음으로 구조모델의 부합도 및 모수치 효과를 추정하였다. RMSEA(.05~.06)를 비롯한 모든 부합도 지수는 부합도 기준에 양호하게 부합되었으나 모수치 추정결과에 따른 가족응집성이 집단따돌림, 우울, 자살생각으로 가는 경로와 가족적응성이 우울, 자살생각으로 가는 경로, 자아존중감이 집단따돌림으로 가는 경로가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경로를 간명화 전략에 따라 단계적으로 삭제한 다음 보다 간명한 수정된 구조회귀모델 1~7을 설정하였다. 수정모델간의 부합도 비교결과, 수정된 구조회귀모델 1~6에서는 이전모델간의 부합도 정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정모델 6과 수정모델 7의 부합도 비교에서 부합도 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정모델 7의 간명성 정도가 심하게 훼손되어 수정모델 6을 최종모델로 선택하게 되었다. 수정모델 6의 모든 부합도 지수에서 부합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기 때문에 수정모델 6을 최종구조회귀분석모델로 선정하여 모수치 추정절차에 따라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은 자살생각에 직접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 집단따돌림과 우울을 통해 간접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im과 Chai(2010)의 연구에서 나타난 가족응집성-적응성이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한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역기능적인 가족은 부적응적인 인간을 만들어 다양한 문제들을 형성하고, 나아가 청소년의 소외, 비관과 더불어 자살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기(Go & Jung, 2007; Lee, Choi, & Kong, 2011)때문에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은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과 더불어 다른 변인들에 영향을 주어 자살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1차적 원인인 가족 성원간의 서로 밀착적이고, 정서적 유대관계를 의미하는 가족응집성과 가족체계가 당면하는 상황적, 발달적 과업에 대응해서 변화할 수 있는 정도(Olson & Gorall, 2003)를 나타내는 가족적응성이 높아질수록 자아존중감과 집단따돌림을 변화시키고, 자아존중감과 집단따돌림이 다시 우울에 영향을 미쳐, 최종적으로 자살생각이 줄어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부모-자녀간의 유대관계가 높을수록 중학생의 자살사고가 낮아지고(Song, Kweon, Jung, & Kim, 2011), 부모와 원만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청소년은 문제상황에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여 자살행동까지 나타난다고 보고한 연구(Kweon, 2012; Lee & Jang, 2011)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가족요인이 증가할수록 집단따돌림 피해가 감소하고 우울적 성향이 줄어들어(van Hoof et al., 2008)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족 안에서 상호기능적인 측면이 증가할수록 자아존중감은 높아지고(Chae, 2004), 자아존중감이 높

아질수록 우울과 자살생각이 줄어들(Choi, 2010)을 의미한다. 즉, Morrison과 Collier(1969)은 청소년의 자살은 개인적인 부적응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가정 붕괴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로 보았으며, Samm 등(2010)은 가족관계에 만족하는 청소년일수록 우울생각과 자살생각이 낮아짐을 보고하였고, Williams과 Lyons(1976)는 청소년의 자살은 가족관계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기(Lee & Jang, 2011에서 재인용)때문에 자살에 있어서 가족상호작용에 따른 기능적 측면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초기 청소년시기에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와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대응정도를 높일수록 자아존중감, 집단따돌림과 그리고 우울을 변화시켜 자살생각이 줄어드는 것이라 밝혀짐으로써 1차적으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가족 간의 상호 기능적인 측면인 가족 간의 응집성과 적응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적 모색이 필요하다 여겨진다.

둘째, 자아존중감은 우울과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우울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높아질수록 우울과 자살생각이 줄어들고,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영향을 주어, 우울적 성향이 낮아지면서 자살생각이 줄어들음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은 청소년 자살의 대표적인 보호요인(Ramey, Busseri, Khanna, & Rose-Krasnor, 2010; Park, 2006)으로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자살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Ramey et al., 2010; Wild, Flisher, & Lombard, 2004)와 자아존중감과 우울은 자살생각의 중요한 매개변인임을 증명한 Park(2006)의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이 중요하다 여기며, 성공적이고, 가치 있음을 믿는 정도(Rosenberg,

1979)가 높아질수록 자신의 존엄성이 커지고, 우울적 성향은 줄어들어 자살생각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경험상 낮은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자살 행동에 중요한 부적요인(Evans, Hawton, & Rodham, 2004; Waldvogel, Rueter, & Oberg, 2008)임을 증명하고 있어, 자아존중감 향상이 청소년 자살에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초기 청소년의 자기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자아존중감 향상에 있어서 방법적 모색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집단따돌림 피해가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울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Koh와 Leventhal(2005)이 보고한 학교에서의 집단따돌림 피해자와 가해자의 자살생각 및 행동을 비교한 연구에서 집단따돌림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자살생각 및 행동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Lee, Kwon과 Kim(2007)은 집단따돌림 피해 정도가 커질수록, 그리고 우울정도가 높을수록, 자살사고도 함께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이같은 결과는 집단따돌림의 피해가 줄어들수록 우울과 자살생각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집단따돌림 피해자가 자살의 범주에 있어서 자살생각을 더 많이 표현함(Skapinakis et al., 2011; van Hoof, 2007)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학교상황 및 사회적 관계 안에서의 집단따돌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넷째, 우울은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과 자살생각은 주요한 관계가 있고(Pace & Zappulla, 2010), 자살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Horwitz, Hill, & King, 2011)임을 확인하였다. Suh(2011)가 보고한 초

기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관한 중단연구에서 청소년이 성장함에 따라 우울과 자살생각 수준도 꾸준히 증가함을 보고하고 있어, 청소년의 우울적 성향은 성장하면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또한 우울장애 고통의 위험성은 일생을 거쳐 증가하며, 특히 9-19세에 더욱 심각해진다고 하여(Maris, 2000), 청소년의 우울의 원인을 조기에 통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게다가,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자살생각에 따른 관련변인들의 구조회귀모델에서는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원인변인들이 우울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울이 자살생각 모델에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변인임과 동시에 자살생각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우울은 자살생각의 주요한 원인변인으로 자살생각의 정도가 시간 경과에 따라 자살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과정(Dubow, Kausch, Blum, Reed, & Bush, 1989)이기 때문에 결과로 나타나는 자살 행위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자살행위에 선행되는 자살생각의 원인변인 중 우울의 통제가 가장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자아존중감, 집단따돌림과 우울에 따른 직·간접효과를 구조방정식 모델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이와 같은 변인 간의 구조적관계가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자살생각을 예측·설명·통제하고 후기 청소년 및 성인기에 발생하는 자살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발달을 도모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성별비교가 아닌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남녀아동의 차이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살생각의 변화

추이 등의 다중 집단 간 비교연구 혹은 잠재성장 모델 비교 등 후속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자살생각에 대한 원인변인으로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자아존중감, 집단따돌림과 우울만을 선택하여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통한 직·간접적인 관계를 알아보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다양한 변인들의 탐색을 통한 그에 따른 관련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 References

- Allison, S., Pearce, C., Martin, G., Miller, K., & Long, R. (1995). Parental influence, Pessimism and Adolescent Suicidality. *Archives of Suicide Research, 1*(4), 229-242.
- Beck, A. T., Kovacs, M., & Weissman, A. (1975). Hopelessness and suicidal behavior.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34*, 1146-1149.
- Bostik, K. E., & Everall, R. D. (2007). Healing from suicide : Adolescent perceptins of attachment relationships. *British Journal of Guidance and Counseling, 35*, 79-96.
- Brausch, A. M., & Gutierrez, P. M. (2009). The role of body image and disordered eating as risk factors for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s. *Suicide & Life-Threatening Behavior, 39*(1), 58-71.
-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0). Youth risk behavior survey, 2010. *Morbidity and Mortality Weekly Report, 59*(SS-5).
- Chae, Y. K. (2004). A Study on Adolescents' Perception on the Correlation among Family Cohesion, Family Adaptability,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 *Adolescents Counseling Study, 12*(2), 136-144.
- Choi, B. G., & Jeon, G. Y. (1993).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Self - Esteem Inventory.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1*(2), 41-54.
- Choi, I. J. (2010). Parents-Adolescent Relationship's Influence on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 Focused on Mediating Effects of Adolescent's Self-Esteem and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7*(9), 105-130.
- Choi, J. Y. (2007). Adolescents' School Bullying Experience and Suicidal Ideation. *Social research, 14*, 223-238.
- Choi, Y. J., & Jhin. H. K., & Kim. J. W. (2001). A study on the personality trait of bullying & victimized school childrens. *Journal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12*(1), 94-102.
- De Man, A. F. (1999). Correlates of suicide ideation in high school students : The improtance of depression.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0*(1), 105-114.
- Dubow, E. F., Kausch, D. F., Blum, M. C., Reed, J., & Bush, E. (1989). Correlates of Suicidal Ideation and Attempts in a Community Sample of Junior High and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2), 158-166.
- Evans, E., Hawton, K., & Rodham, K. (2004). Factors associated with suicidal phenomena in adolescents : A systematic review of population-based studie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4*, 957-979.
- Go, K. E., & Jung, M. J. (2007). Family Functioning,

- Communication, and Adolescent Self-Efficacy. *Journal of Korean family therapy, 15*(2), 201-320.
- Groholt, B., Ekberg, O., Wichstrom, L., & Haldorsen, T. (2000). Young Suicide Attempters : A Comparison between a Clinical and an Epidemiological Sampl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9*(7), 868-875.
- Han, S. Y., & Yoon, H. M. (2010). Difference in Early Adolescent's Self-Esteem, Assertive Behavior and Parent-Child Communication by Bullying Groups. *Human Ecology Research, 14*(1), 31-46.
- Horwitz, A. G., Hill, R. M., & King, C. A. (2011). Specific coping behaviors in relation to adolescent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Journal of Adolescence, 34*(2), 1077-1085.
- Jeon, G. Y. (1993). (The)influence of adolescent-perceived family cohesion, family adaptability, and family system type on adolescent adjust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 Jeon, M. Y. (2007). The comparison between the self-conception of group-bullying students and that of victimized students according to the subject of recogni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 Jung, E. Y., & Shin, H. W. (2009). The Study of the Parent-preschooler Communication and Peer Interaction According to Family System.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4*(3), 239-267.
- Kang, B. J. (2010). The Effect of Family Interaction, Children's Peer Interaction, and Social Force on the Children's Problematic Behavior. *Child education, 19*(4), 93-110.
- Keane, E. M., Dick, R. W., Bechtold, D. W., & Manson, S. M. (1996). Predictive and concurrent validity of the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among American Indian adolescent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4*, 735-747.
- Kim, Y. S., Koh, Y., & Leventhal, B. (2005). School bullying and suicidal risk in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Pediatrics, 115*(2), 357-363.
- Kim, H. Y., & Chai, K. M. (2010).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among the suicidal ideation, schema, family cohesion-adaptability and stress vulnerability. *Korean Association of Human Behavioral Therapy, 10*(1), 39-55.
- Kim, J. H. (2006). (The)Relationship among family system, self-efficacy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University, Seoul, Korea.
- Kim, J. S., & Lim, Y. M. (2002). Relationship among Perceived Stress, Coping Behaviors, and Depression of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Mental Health Nursing, 11*(1).
- Kim, J. Y., & Jung, Y. K., & Lee, J. S. (2009).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ive Relationship in the Contribution of Adolescents' Experience of Domestic Child Abuse to Suicidal Ideation. *Journal of Korean welfare research, 21*, 119-144.
- Kim, Y. H., & Ahn, S. M. (2008). Family Cohesion, Family Adaptability, Parent-Adolescent Com-

- munication, Family Conflict, and Adolescents' Depression & Delinquenc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5(2), 1-31.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3rd ed.). New York : The Guilford Press.
- Kwon, T. Y. (2012). Identifying Latent Classes in Adolescents' Suicide Ideation Changes and Testing Ecological Factors as Determinants of Classes. *Mental Health & Social Work*, 40(1), 89-118.
- Lee, J., Choi, H., Kim, M. J., Park, C. G., & Shin, D. -s. (2009). Anger as a Predictor of Suicidal Ideation in Middle-School Students in Korea : Gender difference in threshold point. *Adolescence*, 44(174), 433-446.
- Lee, G. Y., & Choi. S. C., & Kong, J. S. (2011). The Effects of Parents-Children Dysfunctional Communication and Academic Stress on Adolescents' Suicide Ideat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and Gender Difference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5), 83-107.
- Lee, J. S., & Kwon. Y. R., & Kim, S. J. (2007). The Impact of School Bullying Victim and Depression on Suicidal Idea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The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6(1), 32-40.
- Lee, S. W., & Jang, Y. E. (2011). A Study on the Effect of Adolescent's Academic Stress to Suicidal Ideation : Moderating Effect of Family Cohes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11), 111-136.
- Linehan, M. M. (1986). One population or two?.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487, 16-33.
- Maris, R. W. (2000). Comprehensive of suicidology. New York : The Guilford Press.
- Mazza, J. J., & Reynolds, W. M. (1998).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of depression, hopelessness, social support, and major and minor life events and their relation to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8, 358-374.
- McGee, R., & Williams, S. (2000). Does low self-esteem predict health compromising behavior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ce*, 23(5), 569-582.
- Ministry of Education (2011). 'Strengthen student suicide prevention and crisis management' Press release.
- Moon, D. K., & Kim, Y. H. (2012). A Meta-Regression Analysis on Related protective Variables of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9(1), 59-83.
- Moon, S. B. (2009). Basic Concepts and Application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oul : Hakjisa.
- Morrison, G. C., & Collier, J. G. (1969). Family treatment approaches to suicidal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8(1), 140-153.
- Olson, D. H., & Gorall, D. M. (2003).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In Walsh, F. *Normal family processes : Growing diversity and complexity* 3ed. (PP. 514-548).
- Pace, U., & Zappulla, C. (2010). Relations Between Suicidal Ideation, Depression, and Emotional

- Autonomy from Parents in Adolescence. *Journal Child Fam Study*, 19, 747-756.
- Park, Y., Han, K. S., Kwon, J. H., Kim, H. K., Kang, H. C., Yoon, J., & Cheon, S. (2010). Anger, Anger Ex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in Korean Adolescents.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24(3), 168-177.
- Park, B. K. (2007). Factors Associated With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 Focus on Self-Esteem and Depression as Mediators. *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16(3), 505-522.
- Ramey, H L., Busseri, M. A., Khanna, N., & Rose-Krasnor, L. (2010). Youth Engagement and Suicide Risk : Testing a Mediated Model in a Canadian Community Sample. *Journal of Youth & Adolescence*, 39(3), 243-258.
- Raykov, T. (2004). Behavioral scale reliability and measurement invariance evaluation using latent variable modeling. *Behavior therapy*, 35(2), 299-331.
- Reynolds, W. M. (1988).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 Basic Books.
- Rueter, M. A., & Kwon, H. K. (2005). Developmental trends in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5, 205-222.
- Ryu, H. H. (2012. 4. 21). "Youth in five people think suicide." YTN New.
- Samm, A., Tooding, L. M., Sisask, M., Kõlves, K., Aasvee, K., & Värmik, A. (2010). Suicidal thoughts and depressive feelings amongst Estonian schoolchildren : effect of family relationship and family structure. *European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19, 457-468.
- Suh, H. N. (2011). A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 focusing on the effect of Stress and Depression. *Th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30(3), 629-646.
- Shin, M. S. (1992). empirical study of the mechanism of suicide : validation of the scale for escape from the self.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Skapinakis, P., Bellos, S., Gkatsa, T., Magklara, K., Lewis, G., Araya, R., Stylianidis, S., & Mavreas, V. (2011). The association between bullying and early stages of suicidal ideation in late adolescents in Greece. *BMC Psychiatry*, 11(22), 1471-244X.
- Song, I. H., & Kwon, S. W., & Chung, E. H. & Kim, L. J. (2011). Self-Efficacy as a Mediato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Child Bonding and Suicidal Ideation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School*, 8(2), 199-217.
- Suh, H. N. (2011). A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 focusing on the effect of Stress and Depression.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30(3), 629-646.
- Tolan, P. H., Cromwell, R. E., & Brassuell, M. (1986). Family therapy with delinquents :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Article*, 25(4), 619-649.
- Van Hoof, A., Raaijmakers, Q. A. W., van Beek, Y., Hale, W. W., & Aleva, L. (2008). A

- Multi-mediation Model on the Relations of Bullying, Victimization, Identity, and Family with Adolescent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Youth & Adolescence*, 37(7), 772-782.
- van Tilburg, M. A., Spence, N. J., Whitehead, W. E., Bangdiwala, S., & Goldston, D. B. (2011). Chronic pain in adolescents is associated with suicidal thoughts and behaviors. *The Journal of Pain*, 12(10), 1032-1039.
- Waldvogel, J. L., Rueter M., & Oberg, C. N. (2008). Adolescent suicide : risk factors and prevention strategies. *Current Problems in Pediatric & Adolescent Health Care*, 38(4), 110-125.
- Wild, L. G., Flisher, A. J., & Lombard, C. (2004). Suicidal ideation and attempts in adolescents : Associations with depression and six domains of self-esteem. *Journal of adolescence*, 27(6), 611-624.
- Wilkinson, K. (1974). The Broken Family and Juvenile Delinquency : Scientific Explanation or Ideology. *Social Problems*, 21(5), 726-739.
- Williams, C., & Lyons, C. M. (1976). Family Interaction and Adolescent Suicidal Behaviour : A Preliminary Investigation. *Australian &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10(3), 243-252.

---

2013년 2월 28일 투고, 2013년 5월 31일 수정  
2013년 6월 13일 채택